

朝鮮日報

한은 "중국 경제 빠른 회복세, 내년 8%대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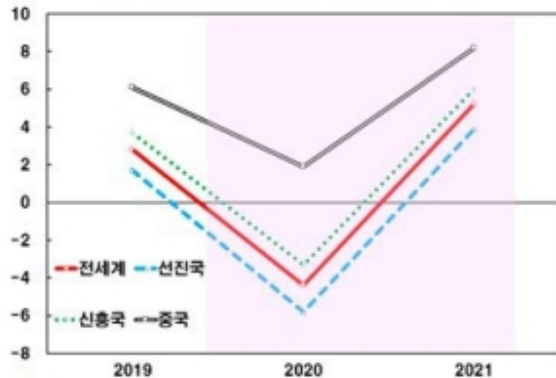
기사입력 2020-12-27 13:18 최종수정 2020-12-27 13:34

주요기관 GDP 성장률 전망(%)

		20년	21년
중국 기관	사회과학원	2.2	7.8
	주요 금융기관	2.1	9.1
해외 기관	IMF	1.9	8.2
	OECD	1.8	8.0
	ADB	2.1	7.7
	8개 투자은행	2.2	8.3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및 Wind(12개 국내 주요 금융기관, 12.14일 현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Economic Outlook(2020.10)

/한국은행 제공

2021년 주요기관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8% 안팎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2~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27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이처럼 전망하며 "중국은 2분기부터 생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지며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하지만 2021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라고 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6.8%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4.9%를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연초에 크게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도 돼지고기 공급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복세에 힘입어 금융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5월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7.8%로 전망했고, 주요 금융기관들은 9.1%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IMF(8.2%), OECD(8.0%), ADB(7.7%) 등 해외 기관도 8% 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다만 "바이든 정부와의 무역·외교 갈등 가능성, 지방정부와 민영부문의 과도한 부채 등은 하

방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했다.

일본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부진했으나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실질GDP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3%까지 내려갔으나 3분기에는 5%대로 4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IMF(2.3%), OECD(2.3%), 세계은행(2.5%) 등 국외 기관이 2%대 성장을, 일본은행(3.6%)과 일본경제연구센터(3.4) 등 일본 국내 기관은 3% 성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인 기자 hyoink@chosun.com]

-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 당신의 맞춤뉴스 '뉴스레터' 신청하세요
- ▶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585985>
